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2년 4월 28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재생콘텐츠과	담당 자	• 시민참여팀장 • 담당자	조소영 ☎458-7331 엄수민 ☎458-73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3개항살롱’ 보금자리 새 단장 후 관광객 손짓
- 도시재생사업 정보 제공, 개항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 기대 -
- 근대역사 간직한 개항장 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

1883개항살롱이 새 단장 후 29일 새롭게 문을 연다.

개항살롱은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홍보 및 관광객 안내 등 업무가 확대되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중구 신포로27번길 53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이전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주민소통 업무와 사업지구 내 시민 및 지역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항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기대된다.

인천 중구 개항장은 1883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 전초기지 및 국제 항구로 성장해왔으며 현재는 차이나타운, 각국 조계지, 동화마을, 개항장거리, 아트플랫폼, 신포시장, 내항(상상플랫폼)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 인천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항장 및 내항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19년 7월 22일 설치된 ‘1883개항살롱’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1883개항살롱과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5월 15일까지 ‘내항 바람나무’를 설치해 내항 우선개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레트로한 감성, 나만의 한 컷’ 행사를 비롯한 이전 기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만날 예정이다.

조승환 시 재생콘텐츠과장은 “ ‘1883개항살롱’은 도시재생사업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개항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관광객들이 재방문하고 싶은 수요자 중심의 소통창구로 재탄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단장한 ‘1883개항살롱’의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붙임> 이전 위치 및 1883 개항살롱 전경 사진

○ 이전 위치



○ 이전지 전경 사진(예시)

